

## 미국 수녀 장상연합회 24년 총회 요약 Summary of 2024 LCWR Assembly

2024년 8월 13-16일 August 13 – 16, 2024

플로리다 주 올랜도 Orlando, Florida

미국 수녀 장상연합회(이하 LCWR the Leadership Conference of Women Religious)

총회는 “우리가 사는 시기는 거룩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를 주제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개최되었다. 505명의 LCWR 회원과 248명의 협력자들을 포함한 753명의 참석자들이 오늘날 세상과 수도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이 시대의 수도생활에 전하는 간곡한 부르심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들 내용은 리더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닌 최선의 모습은 물론 수도회가 지니고 있는 최선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힘을 보태어 줌으로써, 수도자들이 활력을 얻어 그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전역 뿐 아니라 12개에 이르는 다른 나라에서도 참석하였다.

주 연사는 밀워키 대교구 사제이자 포담 대학교 신학 및 사회윤리 교수인 브라이언 N. 매신게일 Bryan N. Massingale, 의학과 신학 분야를 연구하고 멕시코 수도회 연합회(CIRM)와 라틴 아메리카 수도자 연합회(CLAR)에서 봉사하고 있는 마리카르멘 브라카몬테스 수녀 Maricarmen Bracamontes, OSB였다.

LCWR 회장인 모린 기어리 수녀 Maureen Geary(그랜래피즈 도미니코회)는 총회 주제 질문인 “우리가 사는 시기는 거룩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를 모색하였다. 모린 수녀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길을 모색하도록 탐험의 길을 이끌었다.

모린 수녀는 여자수도자들이 어떻게 출현하는 미래를 살아갈지를 찾아가도록 고안된 새 이니셔티브를 LCWR 모든 회원들을 위해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모린 수녀는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 질문이 이렇게 출현하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화를 모색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씨앗을 심을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드러날 때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와 가슴을 사용한다. 함께하면서...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되며... 치유를 가져오는 존재가 되고... 새로운 창조가 될 것이다.”

모린 수녀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서진 세상에 사랑과 격려와 생명을 주는 작은 조각들” 이 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양분” 이 되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들이 오늘날 여자 수도자들에게 세상이 바라는 존재가 되라는 집단 소명을 찾아가는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도록 장려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브라이언 신부는 “어떻게 이름 붙여야할 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용감한 희망의 징표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브라이언 신부는 질문을 통해 수도회 리더들이 전례없는 전환과 변화가 주는 위기 상황에 세상과 교회와 씨름하고 마주하는 가운데, 대화와 공동식별을 하도록 초대하였다.

브라이언 신부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전환이 현대 수도생활의 역동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적 애도의 전통을 통해 이 시대가 주는 도전을 더 잘 극복해나가기 위해 행해야 할 것을 나누었다. 브라이언 신부는 여자 수도자들이 이 시대인 “지금”과 연대하려면,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시대에 살기에... 고통과 상실과 애도에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여기 모인 모두를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그동안 익숙했던 것을 잃어버림에 대해 애도하고 슬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선물로 오는 새로움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브라이언 신부는 여자수도자들이 부서진 세상에 대해 계속 애도하고 슬퍼해야 하며, 애도를 통해 더 큰 정의를 위한 행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끝나야 하는 세상이 지나감을 슬퍼하면서도 기꺼이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법을 교회에게 가르쳐야 할 몫은 여자수도자들의 몫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이 어두운 시기에 미래를 초월하는, 어쩌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시기에 이르기까지 꿈을 꾸도록” 초대하였다. 더불어, 참가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유산을 남길 것인지” 숙고하도록 요청했다. 왜냐하면 언젠가 미래의 어느 때에 그 유산이 필요할 지 모르기에. 브라이언은 “...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이들이 사용하도록 유산을 남기는 일은 태어나고자 애쓰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기꺼이 열어주는 행위이다. 이는 새로움을 위협이 아니라 선물로 환영할 수 있는 법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 이라면서 발표를 마무리지었다.

마리카르멘 브라카몬테스 수녀가 준비하고, 팻 헨리 Pat Henry, OSB 수녀가 전달한 발표에서, 참가자들은 철저한 포용과 그리스도교적 환대에 대해 들었다. 마리카르멘 수녀는 역동적인 문화의 전환을 식별하는데 시간을 기울일 때 우리의 지평의 넓어진다고 믿는다. “수녀회들은, 차이 때문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두려움, 거짓, 잔인함을 퍼뜨리는 양극화야말로 바꾸어야 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의 말과 자세와 행동은 환대의 관계적이고 평등한 과정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 이야말로 참으로 예언적”이라고 말했다.

마리카르멘 수녀는 “환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언어적 의미를 나누면서 그 중에서 환대는 양측 모두에 위협과 신뢰를 동반함을 지적하였다. 즉 손님과 주인이 상호적인 관계가 지닌 잠재력을 발견하고,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주인뿐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지닌 취약함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예수님이 증거한 환대의 몇 가지 특징도 나누었다. 예수님의 환대 양식은 열려있고 무조건적이었으며, 믿을만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선포되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쩌면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관되고 환대하는 이들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또한 “... 예수님처럼 철저한 포용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그 결과 우리가 함께 온전한 존엄성을 인정받고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LCWR 스태프인 앤 먼리 Anne Munley, IHM 수녀는 LCWR 출현하는 미래를 식별하는 이니셔티브 Discerning the Emerging Future Initiative에 대해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LCWR 소속 수녀회들이 어떻게 수도생활을 지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앤 수녀는 우리가 함께 출현하는 미래를 식별하는 가운데, 수도생활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알게된 중요한 사실은 이 시대 우리가 받은 사명의 맥락 속에서 수도생활의 핵심 요소를 얼마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어놓고 또 받아들이는 이 식별 과정에서, 우리는 변모되어가고 있다.”

앤 수녀는 또한 출현하는 미래를 식별하려는 전국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의 과정에 수도회 회원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수도회들이 변화와 전환을 헤쳐나가는 실질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점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수도공동체는 조직체이고 그런만큼 회원들이 회 전체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회원들의 참여는 의미를 생성하고, 통치에 참여하며,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리고 집단 변모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 엄청나고 빠른 변화의 시기에 이들 각 요소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총회 마지막 날에, 참가자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세상을 위한 관상적 기도”를 체험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세상의 나약함에 응답해야 하는 소명을 숙고하는 가운데 세상의 나약함과 연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이 기도 체험은 지구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애도와 슬픔이 먼저 이루어져야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선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춤, 음악, 짧은 독서를 통해 참가자들은 세상의 고통을 애도하는 과정에 함께하였다. 특별히 기후변화, 인종차별, 이주, 양극화와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있는 세상의 고통을 애도하는 과정에. 참가자들뿐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집단의 기도와 현존과 응답의 힘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총회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생방송으로 제공하였다.

총회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LCWR의 새 리더십을 축복하였다. 사우스다코타 주 수폴스의 복되신동정마리아봉헌 수녀회 소속 비키 라슨 Vicky Larson 수녀가 회장 당선자로 선출되었다. 비키 수녀는 2024-2025년 회장으로 봉사할 캐시 브라즈다 Kathy Brazda, CSJ 수녀와 전임 회장으로

봉사할 모린 기어리 수녀와 함께 일하게 된다. 전국 위원회에 선출된 수녀들은 샌드라 헬튼 Sandra Helton, SSND 수녀와 벤티 폴리키 Betsy Pawlicki, OP 수녀이다. 또한 위원회는 진 헤이겔스캠프 Jeanne Hagelskamp, SP 수녀를 연합회 총무로 임명하였다.

낸시 슈렉 Sister Nancy Schreck, OSF 수녀를 올해의 리더십상 수상자로 기념하면서 총회는 마무리되었다. 아이오와 주 더뷰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소속인 낸시 수녀는 수녀회에서 리더십과 양성 사도직을 하였고 LCWR 회장, 그리고 세계여자수도회총장연합회(UISG) 미국 대표를 역임했다. 또한 8년 동안 뉴욕의 프란치스코시녀회의 참사위원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낸시 수녀는 미시시피 주 오클로나에 소재한 공동체 서비스 조직인 엑셀 Excel Inc.을 창립하여 현재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낸시 수녀는, 수상 수락 연설에서, 진행자로 또 연사로 초청받아 만난 전 세계 가톨릭 수도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도 나누면서, 이 숙고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하였다.

연설을 마치면서, 낸시 수녀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 “나는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자 원한다. 그렇게 하면 나 또한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이기에.”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일해오면서, 저는 수도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마리아 엘레나 마르티네즈 Maria Elena Martinez, OSF 수녀는 진행자로, 줄리 트래곤 Julie Tragon은 기도와 전례 코디네이터로 봉사했다. 발표 녹화와 원고, 사진과 기타 자료들은 LCWR 홈페이지 <https://www.lcwr.org/calendar/lcwr-assembly-2024-1>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번역: 천주섭리수녀회

Contact:

Sister Annmarie Sanders, IHM – Director of Communications  
Leadership Conference of Women Religious

[asanders@lcwr.org](mailto:asanders@lcwr.org)

301.588.4955